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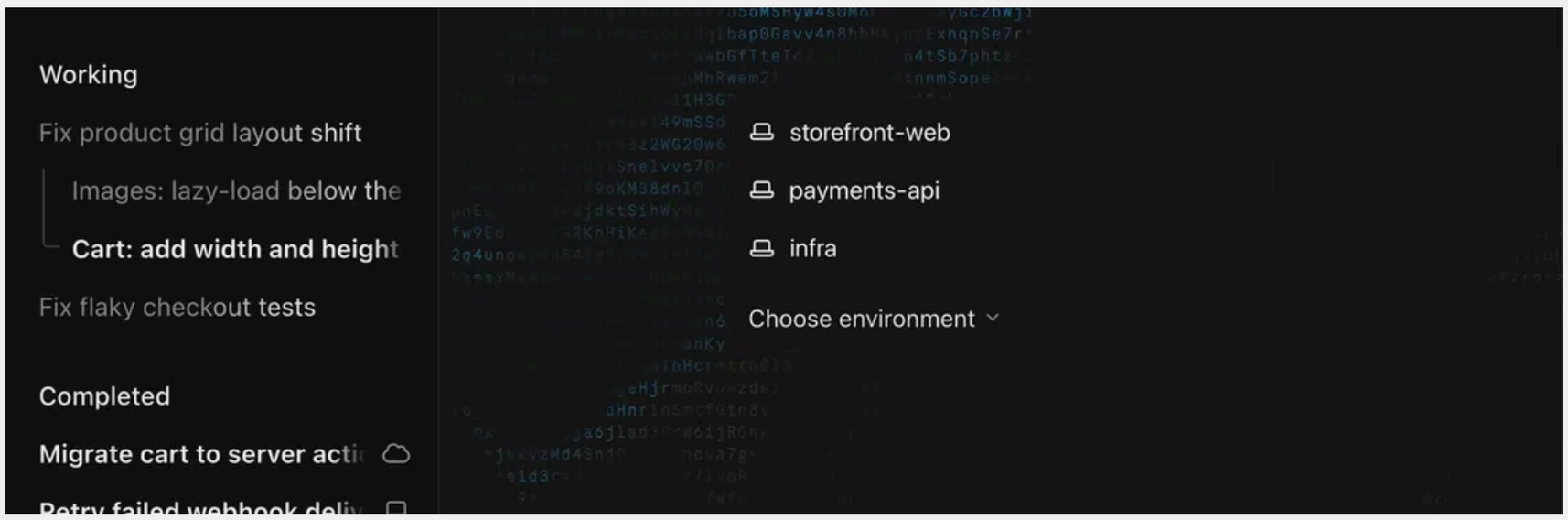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45 호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AI

AI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병렬 세션 개편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앱을 여러 세션을 나란히 돌리는 구조로 개편했다. 병렬 작업은 중첩 세션으로 나뉘어 결과를 메인 세션에 보고하고, 사이드바는 사용자를 기다리는 세션을 따로 보여 준다.



AI ·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병렬 세션 개편

앤스로픽이 10월 14일(현지시간)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앱의 병렬 세션 기능을 개편했다. 클로드 개발자 공식 X 계정 ClaudeDevs는 다섯 개 게시물로 이어진 스레드와 시연 영상으로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회사는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앱을 여러 세션을 나란히 돌리기 좋은 앱으로 만드는 데 힘써 왔다"며 세션을 훨씬 빨리 시작하고, 일을 여러 세션에 나누기 쉬워졌고, 각 세션이 무엇을 하는지 늘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첫 게시물은 올라온 지 1시간여 만에 조회 약 19만 회를 기록했다.

출발점은 새 세션 화면이다. 앤스로픽에 따르면 새 세션 화면은 최근 작업한 폴더를 클릭 한 번 거리에 둔다. 사용자는 폴더 여러 개나 SSH 호스트, 클라우드 같은 작업 구성을 하나의 환경으로 저장해 두고 그 환경에서 바로 세션을 시작할 수 있으며, 폴더마다 깃 워크트리를 따로 만드는 선택지도 있다. 데스크톱 문서에 따르면 세션을 시작하기 전 고르는 실행 환경은 내 컴퓨터(Local), 앱을 닫아도 계속 도는 클라우드, 원격 SSH, 윈도우의 WSL 네 가지이고, 워크트리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루트의 .claude/worktrees/ 폴더에 저장된다.

핵심 변화는 일을 쪼개는 방식이다. 회사는 "클로드에게 작업을 병렬로 돌리라고 하면 작업마다 중첩 세션을 시작한다"며 각 세션이 끝나면 결과를 메인 세션으로 보고해 메인 스레드가 읽기 쉽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클로드는 작업 도중 후속 작업을 먼저 제안하고, 사용자는 그 제안을 클릭 한 번으로 별도 세션으로 돌릴 수 있다. 문서는 이 제안이 현재 작업 범위 밖의 수정거리를 대화 안의 작업 칩으로 띄우는 방식이며, 칩을 누르면 자체 워크트리를 가진 새 세션에서 그 일이 시작되고 기존 세션은 끊기지 않는다고 적었다. /btw 명령을 쓰면 결가지 질문이 별도 탭으로 열리고 데스크톱 앱은 채팅(Chat), 코워크(Cowork), 코드(Code) 세 탭으로 나뉘고 이번 개편은 코드 탭에 해당한다. 문서에 따르면 코드 탭은 프로, 맥스, 팀, 엔터프라이즈 구독이 필요하다. 클로드가 팀장이 돼 공유 작업 목록에서 팀원에게 일을 나누는 에이전트 팀 기능은 여전히 명령줄 도구(CLI)에만 있고, 데스크톱에서는 한 세션 안의 다중 에이전트 작업에 동적 워크플로를 쓰도록 안내돼 있다. 앤스로픽은 기능을 쓰려면 데스크톱 앱을 업데이트하고 새 세션을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메탈은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 프로젝트를 대기자 전원에게 열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은 여러 클라우드 세션을 묶는 그 기능에 이어 개인 컴퓨터 쪽의 병렬 작업 화면을 다듬은 조치다. 메탈이 확인한 10초 길이 시연 영상에서 사이드바는 세션을 입력 필요, 작업 중, 완료 세 묶음으로 나누고, 작업 중인 세션 아래에는 이미지 지연 로딩과 장바구니 수정 같은 하위 작업이 따로 달린다.

이번 변경의 무게중심은 모델 성능이 아니라 관리 화면에 있다. 개발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에이전트를 부리는 작업이 늘수록 병목은 코드를 쓰는 속도보다 어느 세션이 무엇을 하고 누가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는지 파악하는 일로 옮겨 가고, 앤스로픽은 그 파악 비용을 사이드바와 요약 카드, 중첩 세션으로 줄이는 쪽을 택했다.

창업자는 "Codex 하네스는 매우 다재다능해서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델 세대가 바뀔 때마다 에이전트가 맡는 일의 층위도 올라갔다. 카카르에 따르면 GPT-5.5 이전 모델은 사용자가 정해 준 실험만 실행했다. GPT-5.5와 GPT-5.6부터는 결과를 보고 후속 실험을 스스로 설계했고, 지금은 하위 에이전트로 수백 개 실험을 병렬로 돌리며 근본 원인을 추적한다. 한 세션에서 GPT-6.1 Sol은 특정 거래소에서 비공개 체결 거래가 예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짚어 그 영향을 찾아냈다. 카카르는 "연구팀이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던,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GPT-6.1 Sol은 한 세션 안에서 며칠 분량의 계산에 걸쳐 연구의 흐름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모델 선택은 비용과 효율의 계산이다. 서드 모먼트는 최적화, 머신러닝 시스템, 퀀트 연구 세 영역에서 프런티어 모델을 가장 높은 추론 설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GPT-6 Luna도 시험 중이다. 제프리 얀 공동창업자는 "GPT-6.1 Sol은 토큰 효율 덕분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라며 "가장 적은 토큰으로 작업을 끝내면서도 GPT-6 Astra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말했다. 실시간 점수판 서비스의 출력을 그대로 두고 업데이트 지연을 줄이는 벤치마크에서는 카카르에 따르면 GPT-6 Astra가 가장 큰 속도 향상을 냈다. 속도 향상은 같은 하드웨어에서 전문가가 짠 해법의 평균 실행 시간을 모델 해법의 실행 시간으로 나눠 재고, 결과가 정확할 때만 인정한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특정 보안 취약점 점검처럼 범위가 좁은 일에는 GPT-5.6 Terra 같은 효율형 모델을 쓴다. 깊은 연구에 비싼 모델을 쓰는 이유를 카카르는 "퀀트 금융에서는 흥미로운 신호 하

AI

오픈AI, 서드 모먼트 에이전트 운용 사례 공개

오픈AI가 10월 14일 AI 연구소 서드 모먼트 리서치의 에이전트 운용 사례를 공개했다. 이 스타트업은 오픈AI 모델로 에이전트 1만 개를 동시에 돌리고, 에이전트 하나가 사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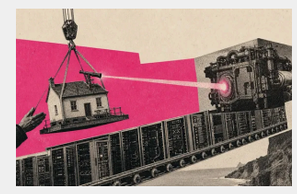
▶ 2면에 계속

오늘 지면

1 AI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병렬 세션 개편
2 AI 앤스로픽,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정부 MOU 체결
3 AI 클로드 API, OpenTelemetry 추적 지원
4 AI 오픈AI, EU 에이전트 활용 보고서 공개
5 AI 오픈AI, 서드 모먼트 에이전트 운용 사례 공개
6 AI 메타, 서아프리카 사기 조직 합동 단속 결과 공개



메타, 페이스북에 Your algorithm 도입



프라임 인텔렉트, 문드림 인수

이 지면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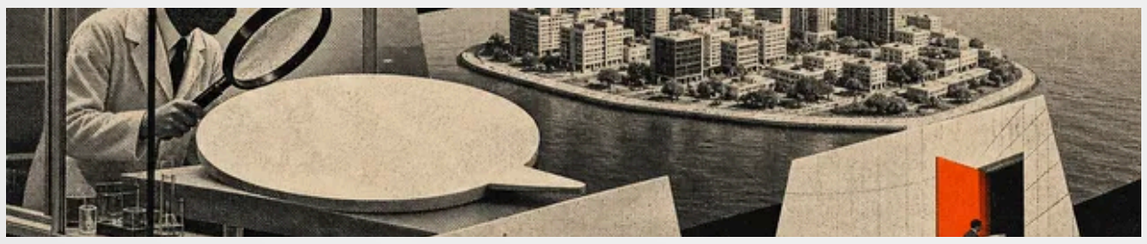
오픈AI, EU 에이전트 활용 보고서 공개

오픈AI가 10월 14일 유럽연합(EU) 기업의 AI 에이전트 활용을 분석한 보고서 「유럽의 에이전트 기회」를 공개했다. 오픈AI 경제 연구팀이 낸 10쪽 분량 보고서의 결론은 하나다. EU 기업의 AI 사용은 넓어졌지만 깊이는 아직 얕다. 9월 말 기준 EU의 챗GPT 엔터프라이즈·비즈니스 고객이 만든 출력 토큰 가운데 55%가 코덱스와 챗GPT 워크 같은 에이전트 도구에서 나왔다. 반면 1인당 토큰을 가장 많이 쓰는 세계 상위 기업 가운데 E

▶ 2면에 계속

AI

앤스로픽,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정부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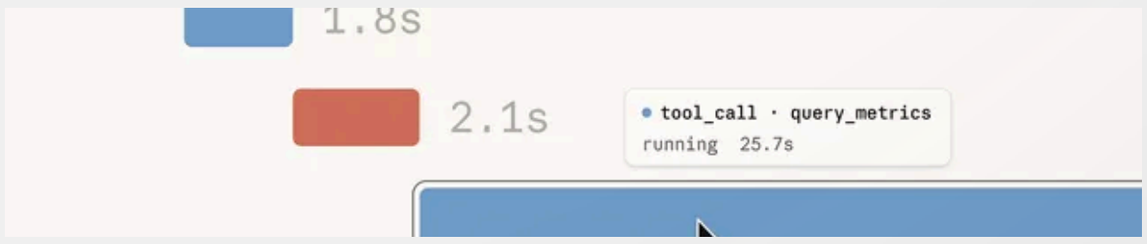


앤스로픽이 10월 14일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쿄, 벵갈루루, 서울, 시드니에 이은 아시아태평양 다섯 번째 거점이다. 앤스로픽은 싱가포르를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클로드가 이미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과 그랩, DBS 같은 기관의 서비스에 들어가 매일 수백만 명이 쓰는 서비스를 떠받치고 있다고 밝혔다.

MOU 서명은 싱가포르 국제사이버주간 행사장 곁에서 이뤄졌다. 정부 쪽에서는 청카이퐁 디지털개발정보부 차관이, 회사 쪽에서는 공동창업자 벤 맨이 서명했고 조세핀 테오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과 마이클 셀리토 앤스로픽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이 자리를 지켰다. 협력 분야는 세 갈래다. AI 안전·보안과 모델 평가, AI 도입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과 민간 부문의 책임 있는 도입이다.

AI

클로드 API, OpenTelemetry 추적 지원



앤스로픽이 10월 14일(현지시간) 클로드 API의 OpenTelemetry 트레이스 내보내기를 공개 베타로 내놨다. 클로드 개발자 공식 X 계정 ClaudeDevs는 "클로드 플랫폼이 Messages API와 Claude Managed Agents, 클로드 SDK의 OpenTelemetry 트레이스를 사용자의 관측 스택으로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모델 요청 하나, 도구 사용 하나마다 스팬이라는 기록 단위가 생기고, 개발자는 코드를 바꾸지 않고 이미 쓰는 관측 플랫폼에서 이를 본다. 첫 게시물은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조회 약 31만 회를 기록했다.

내보내는 내용은 두 단계로 나뉜다. 앤스로픽은 "스팬은 OpenTelemetry genai 규약을 따른다"며 기본값으로 소요 시간, 상태, 토큰 수, 모델, 도구 이름 같은 메타데이터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전송 대상을 전체 콘텐츠 모드로 바꾸면 프롬프트와 응답, 도구 입력과 도구 결과까지 함께 나간다. 플랫폼 문서에 따르면 조직이 앤스로픽과 HIPAA, FERPA, K-12 데이터 처리 제한을 맺은 경우에는 전체 콘텐츠로 설정해도 프롬프트와 응답이 빠질 수 있다.

◀ 1면에서 계속

AI

앤스로픽,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정부 MOU 체결



1 앤스로픽은 10월 14일 도쿄·벵갈루루·서울·시드니에 이은 아시아태평양 다섯 번째 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열었다.

2 공동창업자 벤 맨과 청카이퐁 디지털개발정보부 차관이 AI 안전·모델 평가, 도입 연구, 책임 있는 도입을 다루는 MOU에 서명했다.

3 정부기술청 인력 1500명 넘게 클로드 코드를 쓰고, 그랩은 영업 비서 BriX로 분기마다 약 4만 시간을 아낀다고 앤스로픽은 밝혔다.

맨은 "싱가포르는 모델 시험과 평가에 오래 투자해 온 책임 있는 AI의 선도 국가"라며 "앤스로픽은 능력과 안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말했다. 청 차관은 "신뢰는 기업과 노동자, 시민이 AI를 자신 있게 쓰는 데 결정적"이라며 이번 협력이 정부 기관과 기업의 역량을 키우려는 정부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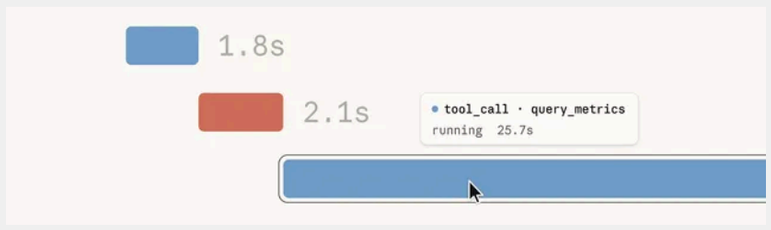
두 쪽의 관계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스로픽은 그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AI 베리파이 재단이 운영한 생성형 AI 평가 샌드박스에 참여했고, 이후 영어·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네 언어로 레드팀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 MOU에 따라 앤스로픽은 싱가포르의 AI 안전·보안·보증 기관과 모델 평가, 시험 표준, 사고 대응을 주제로 기술 교류를 연다. 중소기업의 책임 있는 AI 도입과 공무원 AI 역량 강화를 돕고, 앤스로픽 경제 지수를 포함한 연구와 데이터를 정부와 나누며 싱가포르가 AI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기술·정책 전문성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사무소 개소를 떠받치는 근거는 사용량이다. 앤스로픽 경제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인구 대비 클로드 사용량이 121개국 가운데 2위로, 인구 규모로 예상되는 수준의 6배에 가깝다. 9월 보도에 따르면 이 배율은 5.81배이고 1위는 호주다.

◀ 1면에서 계속

AI

클로드 API, OpenTelemetry 추적 지원



1 앤스로픽은 10월 14일(현지시간) 클로드 API의 OpenTelemetry 트레이스 내보내기를 공개 베타로 출시하고 Messages API·Managed Agents·클로드 SDK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 스팬은 OpenTelemetry gen_ai 규약을 따르며 기본은 시간·상태·토큰 수·모델·도구 이름 같은 메타데이터이고, 전체 콘텐츠 모드로 바꾸면 프롬프트와 응답, 도구 입출력까지 나간다.

3 전송 대상은 클로드 콘솔에서 관리자가 추가하고 조직당 10개까지 둘 수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뒤 앤스로픽 밖의 관측 서비스가 보관한다.

설정은 클로드 콘솔에서 한다. 조직의 OpenTelemetry 설정 화면에서 전송 대상을 추가하고, 관측 플랫폼의 OTLP 엔드포인트와 인증 헤더를 넣는다. 전송 대상을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콘솔 조직의 관리자 역할이 필요하고 개발자 역할은 조회만 된다. 엔드포인트는 HTTPS 443번 포트에서 protobuf 인코딩을 받는 OTLP/HTTP여야 하며, 직접 운영하는 OpenTelemetry 수집기는 기본으로 4318번 포트에서 듣기 때문에 443번을 받도록 바꾸거나 앞단에 로드밸런서를 둬야 한다. 전송 대상마다 모든 워크스페이스, 고른 워크스페이스, 일부를 뺀 전체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설정 뒤 관측 플랫폼에서 service.name이 claude-platform인 스팬을 걸러 보면 되고, 콘솔의 전송 상태가 정상으로 바뀌기까지 약 1분이 걸린다고 문서는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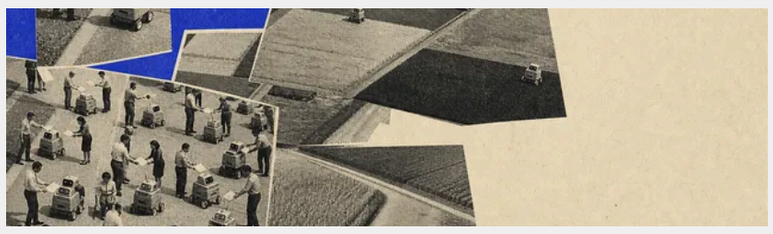
API 쪽 트레이스는 개발자 앱의 트레이스와 이어 붙일 수 있다. API는 요청마다 W3C traceparent 헤더에서 트레이스 맥락을 읽고, 헤더의 샘플링 표시가 꺼져 있으면 그 요청의 스팬을 만들지 않는다. MCP 커넥터로 연결한 MCP 서버에도 traceparent를 넘겨, 서버가 자기 스팬을 API 스팬 밑에 둘 수 있다. 다만 클로드 플랫폼 온 AWS는 아직 이 헤더를 지원하지 않아 그쪽으로 보낸 요청의 스팬은 늘 별도 트레이스로 시작한다.

SDK 쪽은 앱이 등록한 트레이서 프로바이더를 그대로 쓴다. 문서에 따르면 콘텐츠 모드 기본값은 메타데이터만이고, 스팬 하나에 담는 콘텐츠 상한 기본값은 0.75MB다. 대화 ID를 넣으면 여러 호출이 genai.conversation.id 하나로 묶인다. 트레이스 맥락 전파 끄기 옵션은 파이썬, 타입스크립트, 고, 자바, 루비, PHP SDK에서 쓸 수 있다. SDK 추적은 클로드 API와 클로드 플랫폼 온 AWS, 아마존 베드록,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서 모두 베타로 지원된다. Managed Agents를 자체 샌드박스에서 돌리면 도구 스팬은 API 대신 SDK가 만들고, 작업 항목마다 anthropic.environment.work 스팬 하나로 묶인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EU 에이전트 활용 보고서 공개



1 오픈AI는 10월 14일 보고서에서 9월 말 EU 챗GPT 엔터프라이즈·비즈니스 고객 출력 토큰의 55%가 코덱스(34%)와 챗GPT 워크(21%)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2 에이전트 비중은 리투아니아 85%에서 슬로베니아 22%까지 갈렸고, EU 중소기업의 에이전트 주간 활성 사용자는 5월보다 8.1배 늘었다.

3 EU 프런티어 기업은 EU 일반 기업보다 1인당 토큰을 4배 넘게 썼지만 EU 밖 프런티어 기업의 절반에 못 미쳤고, 세계 프런티어 기업 중 EU 비중은 10%였다.

나라별 편차는 크다. 기업 출력 토큰 가운데 에이전트 비중은 리투아니아가 85%로 가장 높았고 키프로스 81%, 헝가리 79%, 폴란드 76%, 스웨덴 73%가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는 65%, 프랑스는 55%, 독일은 51%였다. 아래쪽에는 스페인 30%, 포르투갈 29%, 오스트리아 26%가 있고 슬로베니아가 22%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의 대기업에서 에이전트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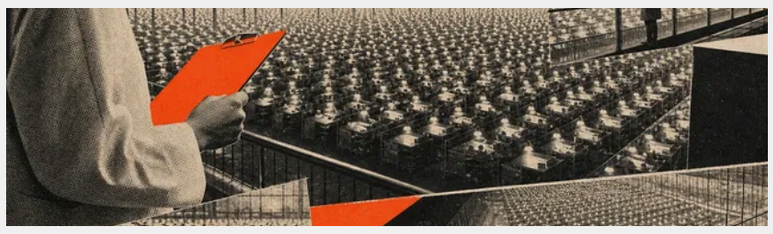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오픈AI는 연결된 사용자가 200명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했다. 5월 1~7일과 9월 29일~10월 5일을 비교하면 EU 중소기업에서 코덱스나 챗GPT 워크를 쓰는 주간 활성 사용자가 8.1배로 늘었다. 벨기에가 12.1배로 가장 빨랐고 이탈리아 10.8배, 룩셈부르크 10.0배 순이었다. 가장 느린 핀란드도 5.1배였고 EU 27개국 모두 5배를 넘었다. 보고서는 EU 중소기업이 민간 고용의 63%를 차지하고 해마다 5조 유로 넘게 EU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며 이 층의 변화를 강조했다.

깊이의 격차는 상위 기업 비교에서 드러난다. 보고서는 활성 사용자 1인당 출력 토큰이 상위 10%인 기업을 프런티어 기업으로 정의했다. 9월 EU 프런티어 기업의 1인당 출력 토큰은 EU 일반 기업의 4배를 넘었다. 그러나 EU 밖 프런티어 기업은 EU 프런티어 기업보다 2배 넘게 많은 토큰을 만들었다. 5월 일반 기업을 1로 놓으면 9월 EU 밖 프런티어 기업은 12.9배, EU 프런티어 기업은 6.1배였다. 세계 프런티어 기업의 지역 분포는 북미 65%, 아시아태평양 13%, EU 밖 유럽·중동·아프리카 11%, EU 10%, 남미 1%였다.

AI

오픈AI, 서드 모먼트 에이전트 운용 사례 공개

AI 연구소 서드 모먼트 리서치가 오픈AI 모델로 에이전트 1만 개를 동시에 돌리며 36~48시간 자율 연구 세션을 수행한다. Codex는 백테스트 시간을 97% 줄였고 하루 토큰 사용량은 1조 개에 이르렀다.



1 오픈AI는 10월 14일 서드 모먼트 리서치가 에이전트 1만 개를 동시에 돌려 36~48시간 자율 연구 세션을 수행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2 Codex는 시뮬레이션 궤적 수천 건을 분석해 백테스트 병목을 찾았고, 캐싱과 메모리 패킹으로 약 3시간을 3~5분으로 줄였다.

3 서드 모먼트는 토큰 효율 때문에 GPT-6.1 Sol을 가장 많이 쓰며, Daybreak로 에이전트 탈출 시험을 자동화하고 수십만 개 하위 에이전트 협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오픈AI가 10월 14일 AI 연구소 서드 모먼트 리서치의 에이전트 운용 사례를 공개했다. 이 스타트업은 오픈AI 모델로 에이전트 1만 개를 동시에 돌리고, 에이전트 하나가 사람 개입 없이 36~48시간 이어지는 연구 세션을 수행한다. 오픈AI에 따르면 서드 모먼트는 하루에만 오픈AI 토큰 1조 개를 썼고, Codex로 백테스트 시간을 97% 줄였다.

서드 모먼트가 내건 전제는 좋은 에이전트는 특정 회사의 특정 업무에 강해야 하고, 쓸수록 능력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 생각을 자기 개선형 AI 시스템으로 옮겼다. 오픈AI 최신 모델로 에이전트의 행동을 분석해 반복되는 약점을 찾고, 그 약점을 겨냥한 합성 시나리오 수천 개를 자동으로 만들어 에이전트를 다시 훈련한다. 새 문제가 나오면 같은 순환을 되풀이한다. 연구와 계산에는 Codex와 GPT-6 Astra, GPT-6 Sol, GPT-6.1 Sol을 쓰고, 에이전트가 일하는 환경의 보안 점검에는 사이버보안 플랫폼 Daybreak를 쓴다.

첫 적용 분야는 퀀트 금융이다. 성과를 수익률로 분명하게 잴 수 있어 에이전트가 어디서 막히는지 관찰하기 좋은 무대라는 판단이다. 병목은 Codex가 찾았다. 당시 최신 모델이던 GPT-5.6을 붙인 Codex가 에이전트의 행동과 환경의 응답을 기록한 시뮬레이션 궤적 수천 건을 타임스탬프, 코드베이스와 함께 분석했다. 미국 주식 1년 치 주문 단위 데이터로 매매 전략 하나를 백테스트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에이전트들은 완료 여부를 반복해서 묻느라 토큰을 낭비하고 컨텍스트를 상태 확인 기록으로 채우고 있었다. Codex는 백테스트를 프로파일링해 캐싱 최적화와 메모리 패킹 기법을 찾아냈고, 해법을 실험한 뒤 운영 환경에 직접 배포했다. 백테스트 시간은 약 3시간에서 3~5분으로 줄었고, 아낀 토큰 예산은 추가 실험으로 돌아갔다.

AI

메타, 서아프리카 사기 조직 합동 단속 결과 공개

메타가 영국 국가범죄청, 미국 FBI와 함께 벌인 서아프리카 사기 조직 합동 단속에서 계정·페이지·그룹 370만 개 이상을 지웠다. 28명이 체포됐고 사기 작업장에 감금된 인신매매 피해자 117명이 구출됐다.



1 메타는 10월 13일 영국 국가범죄청(NCA)이 런던에서 주관한 서아프리카 사기 조직 합동 단속 결과를 공개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페이지·그룹 370만 개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 사기 센터 30여 곳의 단서가 공유돼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 28명이 체포됐고, 가나 시설에 갇혀 있던 인신매매 피해자 117명이 구출됐다.

3 코인베이스는 41만5000달러 넘는 손실을 막았고, 민간 협력사들은 동결 가능성이 있는 자금 1100만 달러를 확인했다.

메타가 10월 13일 영국 국가범죄청(NCA), 미국 법무부·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벌인 서아프리카 사기 조직 합동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메타는 이 작전 과정에서 서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과 페이지, 그룹 370만 개 이상을 삭제했다. 수사기관은 사기 센터 30여 곳에 대한 단서를 넘겨받아 28명을 체포했고, 사기 조직에 인신매매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던 117명을 구출했다. 코인베이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스타링크, 어도비 등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메타는 이번 작전이 서아프리카 지역 사기 조직을 폭넓게 겨냥한 첫 합동 단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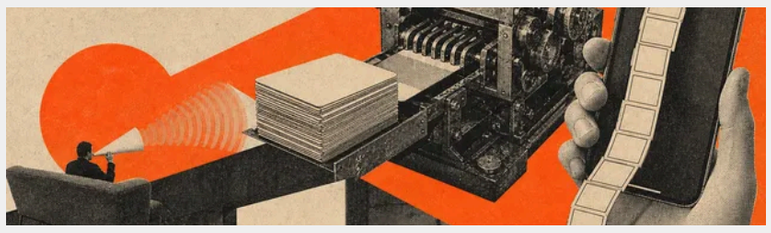
작전 무대는 런던이었다. 메타 발표문에 따르면 NCA는 10월 6일 화요일부터 FBI,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함께 메타를 비롯한 기술 기업들을 런던 본부로 불러 모았다. 가나와 나이지리아 경찰, 호주·캐나다·뉴질랜드·인도 수사기관도 자리했다. 첫날에는 미국 법무부 사기센터 타격대를 이끄는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가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메탈이 확인한 NCA 발표문에 따르면 대면 작전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졌고, 해외 수사기관과 기술 기업에서 100명 넘게 모였다. 15개 기관과 15개 기업이 참여한 이런 형식의 작전은 네 번째이고, NCA가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행사 비용은 영국 내무부 통합안보기금에서 나왔다.

삭제된 계정의 상당수는 미국인과 영국인 행세를 했다. 메타는 지운 370만여 개 가운데 다수가 미국과 영국 사용자를 사칭한 프로필로 그 나라 사람들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손더비 메타 부사장 겸 부법률고문은 "사기는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전 세계적 위협"이라며 "이번 작전은 협력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 준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기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정지했다. NCA에 따르면 영국 사기 신고 창구인 리포트 프로드가 메타에 넘긴 자료로 서아프리카 계정 1110개 이상이 막혔고, 별도로 페이스북 계정 490개 이상과 광고 계정 490개 이상, 사기 도메인 380개 이상이 차단됐다.

AI

메타, 페이스북에 Your algorithm 도입

메타가 페이스북 피드와 릴스 추천을 이용자가 자기 문장으로 조정하는 Your algorithm을 도입했다. 랭킹 시스템에 대형 언어모델을 넣어 요청을 같은 세션 안에서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입력한 문장이 광고에 쓰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 메타는 10월 13일 페이스북 피드·릴스의 추천 주제를 이용자가 직접 추가하고 관리하는 Your algorithm을 도입했다.

2 관심 있음·관심 없음을 누른 뒤 후속 질문에 문장으로 답하면, 대형 언어모델이 들어간 랭킹 시스템이 같은 세션 안에서 추천을 바꾼다고 메타는 밝혔다.

3 발표문에는 이용자 수·출시 국가·일정 같은 수치가 없고, 입력한 문장이 광고나 학습에 쓰이는지도 나오지 않았다.

메타가 10월 13일 페이스북 피드와 릴스의 추천을 이용자가 자기 말로 조정하는 도구 Your algorithm을 도입했다. 이용자는 게시물마다 붙은 점 세 개 메뉴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직접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고, 관심 있음이나 관심 없음을 누른 뒤에는 무엇이 좋았고 싫었는지 문장으로 답할 수 있다. 메타는 이렇게 받은 요청이 같은 세션 안에서 곧바로 추천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 바탕에 대형 언어모델(LLM)을 페이스북 랭킹 시스템에 넣은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뀐 것은 추천에 들어가는 신호의 종류다. 메타 발표문에 따르면 페이스북 랭킹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단 게시물, 시청한 영상 등 수천 가지 신호로 관심사를 추론해 왔다. 여기에 이용자가 직접 쓴 자유 문장이 새 입력으로 더해진다. 메타는 "LLM은 자연어에 담긴 관심사와 맥락, 의도를 반영할 수 있어 실제